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요일2:15). 또 주님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하셨다.(고후6:17-18)

성경이 말한 ‘세상’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정치적인 면, 종교적인 면, 상업적인 면이 그것이다. 계시록에 보면 세상의 정치 제도는 적그리스도가 이끌고, 종교 제도는 **가증한 것들의 어미, 비밀, 바벨론**이라 불리는 큰 음녀가 주관한다. 이 음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가지지 못한 거대한 종교 제도를 가리킨다. 비밀, 바벨론이라는 종교 제도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 세상으로 하여금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도록 이끈다. 마지막으로 상업적인 세상은 상업적 바벨론이라고 나타낼 수 있다.

바벨론은 홍수 후 인간이 세운 최초의 대제국이였다. 노아의 아들 셈은 세계 제국이 시작되는 바벨론 광야에 정착하여 살았는데, 바벨론은 세상에서의 사단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업, 종교 제국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통합적 의미에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경고하는 그 ‘세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금융제도, 세계의 정부, 세계의 종교는 크게 발전하고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또 세상 나라들은 적그리스도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며 정치적, 상업적 이해 관계가 함께 얽혀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금융 제도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표 없이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이다.

앞서 17장에서는 **비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의 종교 제도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18장에는 바벨론의 상업상의 멸망이 다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종교적 바벨론이 로마인 것을 암시했지만, 상업상의 바벨론에 대해서는 비밀로 남겨 두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18장에 예언된 대로 멸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대 바벨론 도성이 재건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고대 바벨론이 다시 한 번 세상의 상업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바벨론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되리라는 예언(사13:19-22)이 아직 문자적으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예언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고대 바벨론 성이 유브라데 강가에 재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는 바벨론의 역사와 그 패망을 볼 때에,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이 모두 실현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시록 18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갑작스런 세계의 부의 이동은 매우 흥미로운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풍부한 석유를 통해서 쏟아지는 수십억 달러를 가지고 아랍인들이 거대한 도시, 즉 옛 바벨론을 재건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바벨론이 재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는 그것이 반드시 재건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바벨론이 종교적으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업 중심 도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바벨론은 항구 도시이며, 세계의 모든 상업적 이해 관계가 관장될 큰 도시일 것이다. 그것은

뉴욕일 수도 있다. 또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른 어떤 큰 항구 도시일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로 바벨론이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

돈을 벌어라! 우리는 자유 경제 체제를 자랑하고 상품과 서비스를 사서 소유할 수 있는 엄청난 세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본래 자본주의에는 고유한 어떤 계약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을 미끼로 삼아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오늘날 세상에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대한 상업적 이해가 판치고 있다. 과거에는 언제나 정치적 이해와 상업적 이해 사이에 뚜렷한 구분이 있었다. 왕은 상인을 구별해서 다스렸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정치적 세력과 상업적 이해가 하나로 결합되었다. 큰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엄청난 상업적 이해 관계에서 얻는 이익을 위해서 전쟁이 계획되거나 꾸며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상업주의에 이용되고 착취당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 상업주의라는 사단의 제도의 희생자인 셈이다.

이렇게 인간 역사의 마지막 시기에 엄청난 세력을 이루는 사악한 경제 체제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바벨'이라는 말은 '혼돈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인간의 종교나 정치 체제, 또한 경제 체제도 분명히 혼돈되고 있다. 계시록 18장에는 바로 이러한 일들 후에 일어날 멸망이 기록되어 있다. 즉 큰 바벨론의 상업적 제도의 멸망이다.

계시록 18:1-5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18:1)

천사들은 굉장히 흥미로운 존재들이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천사는 유력한 천사이다.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해진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18:2-3)

세계 정치와 손잡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된 거대한 상업 제도가 무너지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뉴욕 시에서 월 스트리트(Wall Street)가 상업적 이해를 대표하고, 파크 에비뉴(Park Avenue)가 교회를 나타낸다면, 이 모든 제도는 '세상'을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계시록 18장 첫머리에 보면 세상은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취하였고, 땅의 왕들이 바벨론으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세상의 상인들도 바벨론의 사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다.

세상을 지배해 왔고 지금도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이 단일 체제의 상업 제도를 가만히 보면, 국가들의 정책이 상업적 이해 관계에 의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생활은 점점 더 그런 계획들에 의해 교묘히 조종될 것이며, 이 세력들은 점점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돈이 많은 만큼 많은 세력을 얻는다. 우리는 희생자들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이다.

이 세력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놓고 노름을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아무에게도 자기 하는 일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여왕처럼 군림하며,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갑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6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18:4-5)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유다를 부르셔서 이 상업 제도에서 나오게 하신다.

사람들은 종종 이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한다. 하나님께서 종교적 바벨론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적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문맥상으로 상업적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이다.

지방 교회(Local Church)는 다른 모든 교회들을 '바벨론'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는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한다. 그리고 지방 교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오용하는 것이다.

이제 바벨론은 재앙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유대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나오게 부르시는 것이다.

계시록 18:6-10

그가 존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18:6-10)

바벨론의 멸망은 순식간이다. 바벨론은 일시에 소멸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의 연기가 솟아오를 것이다.

그 때에 세상의 상업 중심지가 어느 도시이든 그 큰 성 바벨론은 원자폭탄으로 파괴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라는 말은 그 지역에 떨어진 방사능을 무서워한다는 뜻일 것이다. 성경에는 사람들이 멀리 서서 그 고난을 두려워한다는 말을 두 번이나 했다(10, 15절). 이 큰 상업 제도가 일시간에 멸망할 것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거기에 접근하기조차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계시록 18:11-14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18:11)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애통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약5:1-3). 이것은 상업주의의 몰락을 나타낸다. 인간의 욕망을 이용하고, 사치스럽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들은 곧 멸망할 것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18:12-13)

부패한 상품들은 생필품이 아니고 모두 사치품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상업주의는 사치 품목을 다루는 시장을 만들어 내고 또 발전시켰다. 그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된 방법은 이것이다. '노예'라는 말은 '몸'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소유물을 가지고 사치스럽게 살기 위해서 자기 몸과 영혼을 판다.

바벨론아 네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18:14)

상품을 광고하는 사람들은 빈틈없는 광고 계획을 통해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들은 우리가 그 특별한 향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 향수를 쓰지 않는 한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마음 속에 허구적인 필요를 갖게 함으로써, 우리가 절대적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단지 유행에 속하기 위해서 물품을 구입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교묘한 전략에 빠지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을 이 큰 상업적 이익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수입의 상당한 부분이 매주마다 컬러 텔레비전, 새 자동차, 또는 유행하는 사치품들을 사기 위해 쓰인다. 사람들은 희생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사치품이나 생활을 안락하게 해주는 것들에 유혹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는 빛지고 있는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느끼게 된다.

예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눅12:15). 사도 바울 역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큰 이익이 되느니라"(딤후6:8, 6)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입던 옷이 오래 되어 낡았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 옷이 유행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리고 새 옷을 산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최신 유행의 노예가 된 데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곧 지옥에 떨어져야 할 이 악하고 추한 심판받을 상업 제도의 손아귀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세상의 모든 상업적 조직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노예된 데서 해방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과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다는 영광스러운 사실은 내가 더 이상 세상 제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그같은 세상 제도의 유혹에 끌려 빛지며 쓸데없는 것들을 사보라. 사실 그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가질 필요가 없는 것들이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런 것이 없어도 행복하다.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며 유혹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모두 가질 필요는 없다. 그것을 모두 가진다 해도 여전히 모자라는 것을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가진다면 다른 것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기 때문이다. 물질을 소유한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물질을 소유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간에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것들의 노예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며, 그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바울은 말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빌4:11-12).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계시므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큰 비밀이다. 이 세상에 관한 한 우리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인생은 순례의 길일 뿐이다. 이 세상이 우리 본향이 아니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들의 곡조에 맞춰 춤도 추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진다. 그들이 원하면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는 순례자요 나그네인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고대한다. 나는 이 세상의 삶을 끝내고 곧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나는 히피운동을 한편으로는 참 반가워했다. 젊은이들이 유물주의 사회에 반항하기 시작하자, 큰 기업주들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도 더 이상 새로운 자동차(Corvettes)를 사달라고 아빠를 조르지 않았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거나, 걸거나, 또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 얻어 타기도 했다. 차가 없어도 상관하지 않았다. 낡고 못쓰게 된 소형 트럭(Van)도 괜찮았다.

물론 상업주의는 재편성되었고,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광고업자들은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이익과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잠깐 동안 아이들은 정말로 그들을 동요케 만들었다. 나는 웃으면서 그 형세를 관망했다. “애들아, 맞다! 너희에게는 저런 것들이 필요없단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행복도, 기쁨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리고 평화나, 만족도 가져다 주지 못한다구.” 그리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들이 참된 해답에 더 가까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만물을 이성적으로 바라본다면 원래의 모습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모습을 의미한다.

계시록 18:14-19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18:14-15)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벌어지는 광경은 얼마나 비극적인가! 상인들도, 왕들도, 선원들도 모두 주위에 서서 울면서 애통한다.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18:16-19)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 순식간에 망하였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거대한 상업 조직인 바벨론으로부터 이윤을 얻고 치부하였던 사람들이 크게 울며 외치며 애통한다.

계시록 18:20-24

땅에서 이런 멸망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멧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니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멧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취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니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을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18:20-23)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부분은 광고를 가리킨다고 생각한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18:24)

이것이 종교적인 바벨론과 관련이 있는지, 아니면 로마의 멸망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 세상의 상업적 바벨론을 대표하는 또 다른 도시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유브라데 강가에 바벨론이 다시 세워질 수도 있다. 나는 이 특별한 문제에 대해서는 편견이 없다.

이제 계시록의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화와 재난과 고통을 가져다 준 타락하고 오염된 세상 제도 대신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는 것이다.

왕국 시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사55:1). 왕국 시대에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값없이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왕국 시대에는 교역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다. 사람들을 이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완전히 공유하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무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소유를 공유하도록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공유하게 하신다.

사랑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 분모이다. 가진 것을 모두 공유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러면 가난도, 궁핍도, 빈곤도 없을 것이다. 왕국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함께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이 7년 대한난의 또 다른 국면에 이르게 될 때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 여정은 힘들다. 그러나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왕국 시대로 들어가게 되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